

■ ‘화해와 통합’ 남기고 간 DJ 서거 한달 정치권은?

이해다툼 여전... 화합은 “글쎄요”

민주, 親盧 문화 움직임 속 자체 추동력 제자리

여권, 충청권 공약·친서민 행보 지지율 올리기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서거한 지 17일로 한 달이 지났으나 정치권은 유훈인 ‘화해와 통합’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개최하고 모처럼 국회를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개헌론이 불거지면서 정쟁 문턱에 다가섰다.

특히 DJ의 ‘상주’임을 자임했던 민주당은 일부 친노세력과 민주당 탈당과 일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정당이라고 자부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친서민 행보를 계속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내 일부 세력들이 당 운영과 야권통합 방법에 대한 정세균 체제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어진 의원들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비주류 문학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와의 역할분담에서만 보더라도 당 대표가 전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선당후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선사후당’하고 있다. 필요하면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조기 전대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자”고 말하며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영남 출신의 조경태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당내 통합·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혁신 대상인 분이 당의 얼굴이 돼야야 되겠느냐”고 성토하며 정 대표의 결정에 반발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당 내부에서 상당히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과거식의 강경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민생과 생활정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강봉균 의원은 “미디엄 투쟁이 중산층까지 외연을 넓히게 하는 폭발력이 있는가”라며 “서민들도 국회에서 싸우기만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경투쟁 일변도인 당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정동영 의원의 복당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대부분 당 소속 의원들은 정 의원의 복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와 측근들은 아직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며 친노세력을 통합의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복당 문제를 먼저 꺼내긴 힘들겠지만 정 의원이 복당한다고 하면 막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일괄 통합론을 제시했다.

이석현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민주세력의 대단합을 이루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지도부에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

다행히 과거 민주화 동지였던 동료동계와 상동동계가 화합의 길을 걷고 있으며 민주당도 지난 14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김경재 전 의원, 나아가 친노세력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복당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 행보로는 대안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통합과 화합을 통해 제자리를 잡고 서민정당으로서 행보를 서둘러야만 DJ의 유훈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박 전 대표와 단독 회동한 것은 지난해 1월과 5월, 올해 1월 등 모두 세 차례다. /연합뉴스

다시 악수는 했지만...

MB - 박근혜 8개월만에 靑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이 최근 개각에서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최경환 의원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단독회동에 앞서 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약 50분 간 특사활동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박 전 대표가 특사로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특사 활동에 한정하긴 했으나 ‘국정동반자’로서 박 전 대표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후 이뤄진 43분 간의 단독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각종 국정현안에 대

한 계획을 설명하고 박 전 대표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독 회동에서 “개헌은 이야기를 안 했고, 남북문제, 4대강, 내년에 열릴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독회동과 관련, 청와대나 박 전 대표 쪽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양측이 과거의 ‘양금’을 해소하고 ‘국정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재보선 때문에...

與 김양수 무소속 양산 출마로 ‘집안싸움’ 野 손학규·김근태에 러브콜... 총력전 시동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승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한나라당=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와 당 공천도 등을 고려해 박희태 전 대표를 양산 재선거 후보로 확정했으나 양산공천을 신청했던 김양수 전 의원이 불공정 공천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로 맞불을 놓아 여권 내 균열이 생겼다.

김 전 의원은 16일 오후 양산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 전 대표 공천에

대해 “현직도 아닌 전직 사또 행사에 나팔수가 된 심정이고, 양산시민의 뜻을 외면한 오만한 결정”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심위원장이 장광근 사무총장은 “자신이 공천을 받으면 당연한 결과이고, 아니면 불공정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강릉 재선거 공천의 경우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예비후보자 간 이견으로 여론조사 경선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이번 재선거의 최대승부처인 수원 장안으로 총출동

하며 재·보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수원 방문은 이 지역으로 이전한 경기도당 사무실의 개소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출마 결심을 미루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구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데 대한 부담감”이라며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손 전 대표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현지에서 개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와 함께 ‘쌍끌이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김근태 전 의원의 안산 상륙을 공천 문제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천정배 ‘민생 포장마차’

순천대서 출판기념회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이 17~18일 이틀동안 광주에서 ‘민생 포장마차’를 운영한다. 천 의원은 지난 14일 천안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포차’를 열어 언론 약법, 4대 강 사업 등 정치현안과 민생 문제 등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천 의원의 ‘민생포차’는 첫날인 17일에는 전남대 후문에서, 18일에는 삼무지구 차령동성당 앞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내년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보훈 전 전남 정부부지사가 오는 26일 순천대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전 부지사가 발간한 ‘조보훈의 진솔한 삶의 향기, 나의 인생, 나의 도전’이란 책은 순천에서 태어나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에 오르기가까지 겪은 인생 얘기를 잔잔하게 담고 있다.

/최정원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만으론 안된다”

정세균 대표, 광주서 민생대연합 제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시민·사회, 재야를 포함하는 범민주개혁 세력의 연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대 웅보홀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민주개혁 세력의 진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질곡을 벗어난 자유훈을 되찾은 민주정부 10년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들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귀, 위기에 처했다”며 “이의 해결은 민주당만으로는 안된다. 민주·민생 대연합을 통해 반 MB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독교를 포기하고 민주·개혁 세력을 만나 통합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도부·당직·공천



등 외부세력에 개방, 전문성·도덕성 갖춘 인사 비례 대표 공천 등을 제시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에 대해 정 대표는 “과거 유적지 보존만 주장하다 문화수도가 변형돼서는 안된다”며 “유적지 보존 가치와 문화수도 성공의 가치를 조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갈등 속에 (문화전당 건설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정·치권 등 광주의 각계가 지혜를 모아 서둘러 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補償販売

555-KB 「사람세상」 발행

가발

조슬림!!

각 품 50만원~

귀하의 불행과 인격을 보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포전화 / 062-373-3888, 062-373-3889 / 011-690-9955

대호온돌나라

상대는 지금이 구입적기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대호온돌나라 ☎ 0021380-1902